

주가 반토막... 집값 휘청... 물가·금리 폭등

서민경제 아사 직전

〈餓死〉

자산가치 폭락 '디플레' 심화

박씨(40·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요즘 주식만 생각하면 머서리가 처진다. 최근 끝도 없는 폭락장세로 인해 즐지에 벋어미에 나왔을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박씨는 "지난해 말 직장을 접고 전업 투자자로 나섰지만 1년도 안 돼 1억6천만 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며 "계좌에 2천만 원이 남아있지만 1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 자산 디플레이션의 환파가 몰아치고 있다. 극심한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최근 주가까지 '반 토막' 나는 등 자산가치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불황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까지 확산되고 있어 서민들의 가슴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중시 반 토막=지난 24일 코스피지수는 938.75로 장을 마쳤다. 이는 2005년 6월 29일(999.08) 이후 3년4개월 만에 1,000선이 무너진 것으로,

지수가 지난해 말보다 50.5%나 폭락했다. 올 들어 주식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고스란히 '반 토막' 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려던 개인들은 예상치 못한 실질자산 감소에 침뚫힌 표정을 짓고 있다. 또 대출 등을 통해 종자돈을 마련한 투자자들은 벋어미에 올라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상당수 투자자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며 '올며 겨자먹기 식'으로 주식 투매에 나서고 있다. 심지어 이날 광주에선 주가 폭락을 고민하던 4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국내 29개 내집마련주택주식형 펀드의 지난 1년간 평균 손실률은 33.76%나 됐다.
 ◇지역 부동산 수년째 '깊은 잠'=부동산시장 침체도 광주·전남의 자산가치 하락에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수년째 지역 내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타지역을 크게 밑돌면서 실질적인 자산이 급감하는 효과가 뚜렷하다.
 올해 광주·전남의 집값 상승률은 각각 1.7%, 2.6%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3.8%)을 밑도는 것으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4.6%)에도 크게 못 미친다.
 광주·전남은 땅값도 올해 각각 0.86%, 1.82% 상승에 그쳐 전국(3.92%)에 비해 자산가치 하락이 두드러졌다.
 ◇금리·실업률은 고공행진=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마저 연일 치솟으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7.5~8.0%로, 1년 새 1.12~1.62%포인트 상승했다. 이 역을 기준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112만~162만 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9월 말 현재 광주의 실업률도 4%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불황 속에 금융시장 불안까지 겹쳐 지역 기업들이 고용을 대폭 줄이고 있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꽃감이 '주렁주렁' 주렁주렁 걸려 있는 꽃감이 풍성하다. 26일 아기 손 만한 잎사귀가 특징인 '애기단풍'을 보기 위해 장성 백양사를 찾은 한 가족이 농가에 걸려 있는 꽃감을 구경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문화수도' 맞아?

상표 디자인 출원·등록 전국 최하위권
 관계자들 마인드 부족... 전남은 상위권

특산물 및 지역공산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남지역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등록 활동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반면 '문화수도' 광주는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상표는 6천625건이 출원되고 5천228건이 등록됐으며, 디자인은 553건이 출원되고 864건이 등록되는 등 모두 7천270건의 상표와 디자인이 출원되거나 등록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천924건의 상표와 디자인 출원 및 등록으로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좋았으며 경기도가 1천804건, 충남이 1천674건, 전북이 1천433건으로 뒤를 이었다.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는 210건에 불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에 머물렀다.
 전남도의 경우 상표 997건이 출원, 725건이 등록됐으며 디자인은 109건이 출원, 93건이 등록됐다. 이 같은 실적은 16개 자치단체 중 가장 좋은 것으로 최하위인 대구시의 상표 출원 16건, 등록 4건의 62.3배, 16배나 되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반면 광주는 최하위인 대구보다는 앞섰으나 상표 출원 112건, 등록 88건 등으로 하위권이었다.
 광주는 또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디자인 출원 및 등록도 각각 4건,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실적이 저조한 시·도 경우 지자체 관계자들의 마인드가 부족한데다 당사자들이 무관심하기 때문이다"며 "항우 지자체간 지역 특산물이나 공산품 등에 대한 마케팅이 치열해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브랜드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영업 및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청에서도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park@kwangju.co.kr

The Legendary Korean Rock Band
YB 광주콘서트
윤도현밴드

11월 29~30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광주콘서트는 엄청난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YB 윤도현밴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결성 11년째를 맞은 YB는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4인 밴드로 특히 2002년 월드팝 가요제 1등 수상, '올해의 신인 밴드'를 비롯해 전국에서 사랑받는 그들로써까지 왔습니다.

YB는 최고의 음악 시선과 무대 퍼포먼스를 갖춘 이번 공연에서 "사랑했나봐" 등 사랑

작인 음악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윤도현밴드도 '라이브 공연의 진수'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11월 29일 공연을 앞둔 YB는 전국 투어의 일환으로 이번 광주 공연에서 새 앨범 수록곡을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공연에는 대규모 전국 투어 콘서트와 미국과 유럽 투어 등을 통해 한국에 소개된 YB의 모습을 선보일 YB 공연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 시 : 2008년 11월 29일(토)~30일(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 일요일 오후 5시
 장 소 :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주 회 : 광주일보
 협 찬 : 포스코건설
 문 의 : (062)220-0541, 1588-0766
 예 매 : www.ticketmaru.co.kr / 티켓이후 / 티켓링크 / 티켓닷컴 / 광주연예

금융·실물경제 살리기 '올인'

경제상황점검 회의

정부는 26일 국제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로 중소기업, 가계의 이자부담

담 금등과 수출 침체, 외환 금등 및 주식 폭락 등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에 빠져들고 있다고 보고 이르면 내주중 경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종합대책에는 시장 금리 안정, 내수 활성화, 기업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전략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단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어 금리를 최대 0.5% 포인트까지 추가 인하하는 방향으로 집중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박병원 경제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만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선부지구 3대병원 5층
 062-226-1111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062-226-0000

전남과학대학
 전남과학대학
 062-226-3000

고객사랑의 약속!!

우체국택배, EVER RICH, 우체국쇼핑

www.e-POST.kr ☎1588-1300, 1900

POST 전남체신청·우체국